한겨레 국민주주님께

올 3월 주주총회에서 한겨레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현대입니다.
국민주주님께 편지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큰 소식부터 알려 드립니다. 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맞는 5월18일, 1만 번째 한겨레신문, ‘10000호 한겨레’를 발행했습니다. 제가 7만 국민주주님 덕으로 ‘10000호 한겨레’를 일일이 배달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 떨리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32년 전 봄날, 창간을 준비하던 선배들이 “훗날 우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국민주주님들 덕분에 마침내 50억원의 창간기금은 모았지만, 과연 신문을 제대로 찍어낼 수 있을지, 정상적으로 배달은 할 수 있을지,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겨레가 1호에서 100호, 1000호의 다리를 건너 10000호에 이르는 대장정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한겨레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겨레 1호 사원’인 저는 한겨레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전인 1987년 10월 1일, 훗날의 한겨레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창간 사무국의 막내였던 저는 예비 국민주주님들을 만나 새신문 창간 준비 소식을 전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아이 돌반지 모아서, 첫 월급 털어서, 창간기금 모아주신 국민주주님들의 간절한 참언론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지만, 실은 국민주주님께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7만 국민주주님의 절반 이상은 이 편지조차 받지 못하실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이 끊어졌고, 국민주주님들을 세심하게 찾아 모시는 노력을 저희들이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겨레 사랑이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질타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던 기득권 언론의 행태를 우리 스스로 닮아가고 있지 않은지, 약한 이들의 소리에 멀어지고 독자를 가르치려 들지는 않았는지, 뼈아프게 돌아보겠습니다.

그나마 32년 만의 첫 배당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엄습해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주주님과의 첫배당 약속만은 꼭 지키자고 전체 임직원들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민주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보답에 불과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국민주주님 한분 한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더 성실하게 모시는 한겨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겨레는 험하고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모두가 엄혹한 상황을 맞은 이때에, 우리는 10000호를 넘어 또 다른 10000호를 향한 전진의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 뒷면으로 이어짐

저희는 며칠 전 새로 보완한 한겨레 취재보도 준칙과 수사·재판보도 세칙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준칙과 세칙은 오로지 진실을 추구하는 고품격 신뢰언론 한겨레의 길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의 작은 허물이라도 독자와 취재원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일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가디언 같은 세계적 정론지들은 “정정보도와 사과를 잘한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레기 언론과 가짜 뉴스가 판치는 대한민국 언론 지형에서 한겨레가 이 길을 먼저 걸어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겸손한 언론의 대명사로, 다시 주주와 독자들의 한결같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불신 초연결 시대에 ‘신뢰의 연결’로 한겨레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이는 진실과 평화라는, 한겨레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두 핵심 가치를 꽃피우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한겨레”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넘어, “그래 한겨레”라는 진정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한겨레는 32년 전 창간사에서 “결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독립된 입장 즉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보도하고 논평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정치 진영 간의 고질적인 갈등의 시대를 극복하는 길을 열어하겠습니다. 대결의 시대를 넘어 기후변화, 젠더, 불평등 같은 다층적인 평화 의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세상을 더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도전하는 꿈도꿉니다. 신문-디지털-방송을 망라해 건강한 진보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지금 시대 한겨레의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고품격 신뢰언론을 개척해, ‘한겨레 방송’을 지지하는 뜻있는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주주님께 다시한번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32년 전 참된 언론 만들자고 호주머니를 털었던 국민주주님이야말로 한겨레 1만호의 진정한 뿌리라는 사실, 엄중하게 되새기겠습니다. 한겨레가 태생부터 사회적 자산이고, 공공재 언론이란 디엔에이(DNA)를 뱃줄에 각인하고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겨레의 창간 스승인 고 리영희 선생님의 “글을 쓰는 나의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하고 그것에서 그친다”라는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가슴 깊이깊이 새기겠습니다.

2020년 5월 18일

한겨레 대표이사 발행인

김현래 드림